

# 편치라인

## 순 계 도 입

**Pure Line**—(기초계 혹은 순종계로 불리워지는 닭 육종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세대) 이 순계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양계업체와 만남으로써 그야말로 백가지의 조화를 부릴 수 있는 마술사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 신 정 일

(유일농원영업부장)  
(본지편집위원)

#### ● 왜 순계도입 방침이 결정되었는가?

농수산부는 국내육종개량을 위한 외국의 순계를 도입한다고 결정 발표하였다. 순계도입의 목적은 국내육종개량에 있다고 당국은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비단 양계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명분은 명분으로서만 그치고 실질적인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허다한 예들을 보아 왔기 때문에 이번 당국의 순계도입 발표에 대해서도 왜 이러한 방침이 갑자기 결정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의 고리를 해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순계도입이 국내육종개량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닭의 육종에 두드러지게 노력하고 있는 곳이 민간기구로서 한협가금육종농장(이하 한협이라 칭한다), 국가기관으로서 농수산부산하 축산시험장(이하 축시라 칭한다)이 있다. 이 두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경비와 꾸준한 노력으로 닭의 육종개량에 힘써 왔으며 그결과 한협계는 대한양계협회 경제능력검정(Random Sample Test)에서 수차 우수한 능력성적을 나타내었고 최근 발표된 축시계도 자체능력검정에서 외국수입계에 못지 않은, 오히려 산란율등에 있어서 더욱 우수한 계통으로 육종되

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국내육종과정중에 최근 들어서 특별히 문제된 어떤 육종상의 애로점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한협이나 축시에서도 육종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외국 순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당국은 갑자기 국내육종개량을 위하여 순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순계도입방침이 육종개량만을 위한 목적일까? 이 방침의 결정이 있기까지 어떤 동기와 원인이 따로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또한 이 방침이 실행되어지는 동안 과연 당국의 의도대로 육종개량만을 위해 잠음없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국내 육종업체와 부화업체에는 어떠한 파생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순계 2,000수 도입발표에 대해서 벌써 열손가락을 헤아릴 정도로 국내의 유명부화장에서 도입신청한 수량이 1만여수에 이르고 있다. 이의 조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양계업이 지난 십수년간 발전되어 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외국품종을 대해왔다. 60年代 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종계들은 거의 P.S.(종계=Parent Stock)형태로서 70年代초에는 약 40여종으로 가히 종계수입의 피크를 이루었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오

# 핀치라인

은 각종 품종들은 경제능력검정에서의 좋지 못한 성적과 일반 사양가들의 실질적인 경험에서 수익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됨으로서 자연적인 수입도태를 당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중에 Hyline계통, Shaver계통, Euribrid 계통등이 G.P.S(원종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경기의 호, 불황은 초생추생산량의 다소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왔으며, 양계인들은 호황일 때 달려들고 불황일 때 물러서는 사업자세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3년을 주기로 호불황이 교차되는 현상을 빚어내었다. 부화업자의 임의대로 종계가 수입되는 체제하에서는 양계산물 생산조절이 도저히 불가능했고 따라서 양계산업에 있어서 투기성은 항상 위협하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계산물의 생산을 조절하고 외국종계에 짓눌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국내육종계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부는 74년부터 외국종계의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실시하였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작년과 올해의 사상 최고의 호황이었다. 사실 이번의 호황은 73년의 지독한 불황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3년 주기론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의당이 호황이 될 시기이었다. 다만 옛날과 같이 부화업자 임의대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갑작스런 공급증대현상이 없고 국내의 他産業이 호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이어서 양계경기가 안정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수입 부화업자들은 이러한 호박을 그냥 넘겨버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내육종기관에 고개숙이며 예하에 속하려 하지 아니하며, 현재의 초생추 구입난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계의 절대량이 부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종계를 수입해오면 반드시 돈을 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도입하여 사용한 외국종계의 수명도 올해로서 거의 완전하게 끝난다.

이제는 양단간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해서 그들은 국산계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외국계를 수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종계와 원종계는 전면 금지조치가 되어 있다. 경기는 호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짜 내어진 묘안이 Pure Line이 아닌지? 필자는 매우 아리송하다. 물론 그들중에는 육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참된 육종에 전력투구하면서 사업을 전개시킬 부화업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국이 업자들의 성가심에 못이겨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당국이 발표한대로 국내육종개량을 위하여 순계도입을 허용한 것으로 안다. 이제 신호탄은 울랐다. 공격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순계는 도입될 것이다. 누가 어떠한 계통을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씩을 도입하여 어떻게 관리운영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부화업계와 양계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변모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 순계도입의 의의

종계의 능력이 高度로 固定되어져 있고 그 종계가 지닌 고유의 능력을 자손에게 확실히 유전시키며 확대재생산을 통하여 더욱 그 능력을 개량육종할 수 있는 상태의 종계를 순계라 한다. 우수한 순계가 도입되어 훌륭한 육종관리하에서 그 자체의 능력을 더욱 개량하고 국내에서 육종되고 있는 계통들과 서로 교류되면서 각각의 특성을 상호보완 육종될 때 순계도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육종기간의 단축, 경비의 절감, 시행착오의 배제 등을 생각할 때 이번 당국의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육종사의 일대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 핀치라인

## ● PL이나? G.G.P.S이나?

닭을 육종하는 회사에 있어서 Pure Line(순계)은 그들의 생명과 같다. 그들의 생명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과연 내어 줄 것인가? 원종계(G.P.S)나 종계(P.S.)는 그들의 상업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양해 준다. 그러나 PL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농수산부의 순계도입방침이 발표되기 전 모부화장에서 순계도입설이 팽배할 때 어떤 부화업자와의 대화 한토록—

“C부화장에서 순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오. 순계가 뭐 어릴애 장난감인줄 아시오. 순계를 달라는 말은 당진집을 나에게 달라는 소리와 같은 것이오. 누가 자기집을 남에게 줍니까?”

순계도입에 있어서 가장 첫번째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과연 외국의 육종회사에서 순계를 내어 줄 것인지, 그리고 순계를 주더라도 우수한 능력의 순계를 우리에게 줄 것인지의 여부이다. 비싼 경비의 대가로 받아들인 순계가 형편없는 능력의 C급계종일 때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순계는 확대재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그 특성을 더욱 개량하여 나간다. 우리는 일반 부화장에서 P.S(종계)관리를 잘못하므로서 생산되는 cc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예를 흔히 보아 알고 있다. 순계도입자가 그 육종관리를 잘못한다면 이는 종계(P.S.)정도에 비할 바가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 비싼 돈의 댓가로 수입된 순계가 잘못관리 될 때 이 또한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몇년전 대통령 선거당시 야당의 수권능력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음을 기억한다. 현재 순계를 수입하겠다고 신청한 국내의 10여개 부화장들이 과연 순계를 제대로 관리, 보급,

육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 이미 혈통이 고정되어 있는 우수한 순계를 도입하여 중간에서 시작하는 마라톤경기와 같은 유리한 입장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육종이라는 사업은 멀고도 험난한 경쟁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막대한 경비와 노력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굳센 정신자세가 확립되어 있는가? 특히 육종이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임하는 사업관이 필요한 분야이다. 순계를 수입해서 육종에는 관심이 없고 한 두세대의 G.P.S.(원종계)만을 생산 판매해 버리는 소위 사이비G.G.P.S.(원원종계)형태로 끝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순계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G.P.S.(원종계)나 P.S.(종계)를 수입하여 장사하는 그만술도 존재할 수 있다. 순계도입을 신청한 국내의 저명하고 젊잖은 10여명의 부화경영주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양계업발전을 위하여 육종에 뜻을 둔 부화장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진실로 감동할 따름이다. 농수산부에서 결정한 수량은 순계 2,000수이다. 순계도입을 신청한 모든 부화장에게 꼭 같이 쪼개어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업의 가장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상호협조하여 좋은 결론을 마무리 짓는 수법을 보여야 할 것이다.

## ● 더욱 중요시 되는 검정사업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는 외국어의 종계이름, 하이라인, 바브룩, 하이섹스, 세이버 등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측시 742호, 한협 603호 등 외에 새로운 국산종계의 이름이 몇개일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것이다. 순계가 도입되고, 새로운 품종이 육종되고, 이미 육종되어 있는 계통과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서 더욱 능력이 향상될 때 이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닭 경제능력검정 뿐이다. 국내의 육종이 끊임없이 진

# 편치라진

행될 때 능력검정사업도 보다 충실히 계속 강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능력검정사업은 대한양계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일반양계인들의 이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 검정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며 연구사업이다. 국가에서 경영보조금이 보태어지고 있지만 회원들도 특히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부화장에서는 깊은 관심과 함께 능력검정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검정사정 관리체계가 소장 1인과 관리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의 육종 결과를 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검정사업체제로서는 너무나 초라하다. 일반 양계장에서 관리원 1인당 3,000수씩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검정사업에 적용한다면 큰 오산이다. 영리사업에서 관리원의 한번 실수는 탐 한마리의 폐사로서 끝난다. 그러나 연구사업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구사업에서의 경영인원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검정사업이 대한양계협회의 한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들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집행부나 검정위원회에만 맡기는 수동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 육종업계의 양상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축산시험장에서 구상하고 있는 형태는 국내 민간육종회사나 혹은 순계도입회사 등 육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부화장은 축산시험장을 주축으로 부분육종을 담당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공동육종양상인 것 같다. 그러나 야망이 있는 부화장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거부할 것이다. 순계도입을 신청한 10여개 부화장이 협력하여 공동관리하는 민간육종회사의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육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

능역도 있는 부화장이 있다면 여기에도 찬성치 아니할 것이다. 순계도입신청은 했지만 꼭 하고자 하는 집념이 부족한 부화장들이 중도 탈락되고, 1~2개의 부화장이 본격적인 육종회사로서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많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형태가 제 3의 양상일 것 같다. 만약 2개의 새로운 육종회사가 설립될 때 국가기관인 축산시험장을 제외하고 민간육종회사로서는 국내에 한협을 포함하여 3개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계업계를 감안할 때 3개 정도의 육종회사는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혹은 적당한 것인가? 신설되는 2개의 육종회사에서 각각 다른 계통의 우수한 능력의 순계를 도입하여 경쟁적으로 육종에 전력투구하면서 기존 한협계통과 서로 순계교류를 이어갈 때 우리는 훌륭한 종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된 PS(종계)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순계를 도입하여 육종회사가 신설될 경우 우리의 목표는 종계수출에 두어야 할 것이며, 국내시장을 점유하기 위하여 과당경쟁이나 생산과잉을 초래치 아니할 경우 3개사 정도의 육종회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畜産界有一의 情報紙「畜産과食品」은 發行部數 2萬으로 나날이 購讀者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本誌의 情報소통을 圓滑히 하고자 購讀者 및 廣告協贊계재를 널리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처

사단법인 한국축산단체연합회

「畜産과食品」편집실

서울 중구 양동四四~二

전화 ㉠ 二三六三